

2006년 정기총회 성료



2006년 정기총회 성료



ESCO협회 2006년 정기총회가 지난 4월 6일 팔레스호텔에서 총 회원 32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설적보고와 2006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개정(안), 회비수수료기준(안), 투자실적확인서 발급기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는 ESCO자체투자 실적인정업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해 수행한 ESCO자체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업계의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의 업계평균 산출 및 공시를 매년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산출기준은 최근 ESCO사업실적이 있는 업체의 평균이다.

정관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4조 ESCO협회의 사업에서 입찰 평가용역 등 용역사업을 추가했다. 또 회원의 자격에서 현행규정에 “협회의 운영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함”을 추

가해 이사회에서 회원의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탈퇴자의 회비환불요구 거절 근거로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 협회의 업무 중 하나인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기준과 관련해 비회원사에도 일반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회원사와 비회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으로 비회원에 발급하지 않아야 위상강화 차원에서도 유효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출됐다.

협회 유제인 회장은 “회원사확대, 협회기능 강화 등 지난해 설정한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위상강화 및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SCO 협회는 현재 정회원 33개사, 특별회원 3개사로 구성됐다.



협회 사무실 이전

창립7주년 기념 등반대회 4월 29일

ESCO협회는 창립 7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4월 29일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등반대회에서는 등반행사와 함께 ESCO공로자 및 우수회원에 표창도 실시한다.
협회는 ESCO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 매년 정기총회 개최 후 등반대회를 실시해 왔다.

협회 사무실 이전

ESCO협회가 사무실을 이전한다.
협회는 4월 말경 현 서울시청 근처 삼성생명빌딩에서 강남구 역삼동 삼일플라자 빌딩 7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2006년 녹색에너지 우수기업대상' (이하 우수기업대상)환경·바이오 부문에 ESCO협회 회원사인 삼성에버랜드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대상은 에너지 혁신을 주도해온 우수 기업과 환경 분야의 혁신을 진행 중인 제품 및 업체를 발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과 그 세부 실천 사례를 시행하는 행사로 올해 4회째 실시됐다.

"에버랜드는 ESCO 1호기업으로 ESCO사업 이후 160만TOE가량의 고객 에너지(4,700억원절감)를 절감해 12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 공로로 선정됐다"고 한국일보 측은 밝혔다.

한편, 올해 녹색에너지우수기업 대상에는 52개사가 선정됐다.